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학생 프로필

이름
치 완

국적
중국

프로그램
Graduate Diploma in
Teaching (ECE) (레벨 7)

학업 연도
2024

캠퍼스
NZTC 온라인

Scan to watch
her full story



QI'S STORY

NZTC 학생 성공 스토리

배경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치완이에요. 중국 북서부에서 왔고, 2023년에 뉴질랜드에 오게 됐어요. 학생 비자를 받아 NZTC에서 유아교육 Graduate Diploma 과정을 공부했고, 2024년에 마무리했어요. 그전에는 중국의 국제 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쳤고, 호주에 있을 땐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

유학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NZTC가 유아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유연한 학습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홈 센터(Home Centre)'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고요. 그게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학습 경험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NZTC 포털을 통해 필요한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론부터 문화적 이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는데, 특히 뉴질랜드의 양문화 교육(bicultural practice)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마오리 문화에 대한 인식도 훨씬 넓어졌고, 그 이해를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홈 센터와 취업 여정

처음 홈 센터는 제가 직접 여러 유치원에 연락해서 찾았어요. 그곳에서 실습을 마친 뒤에는 단기 보조교사(Reliever)로 일했죠. 이후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NZTC의 도움을 받아 새 실습 센터를 찾았고, 그곳에서 다시 실습을 하고 나서 보조교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그 센터에서 예비 등록 교사 자격(Provisional Registration)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NZTC의 지원

NZTC의 학생 지원팀(Pastoral Care Team)은 정말 든든했어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늘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줬죠. 또 제가 학업 중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실습 일정을 다시 조정해주고 추가적인 지원도 알아봐 주어서 뉴질랜드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유아교육은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걸 느꼈어요. 실습을 하면서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선생님들을 관찰했는데, 어떤 분은 단호했고 어떤 분은 부드러웠어요. 그 경험을 통해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 각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춰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유학 중 힘들었던 순간들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특히 실습 기간에는 몸도 정말 힘들었어요.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리플렉션을 쓰고, 과제 제출과 자료 준비까지 모두 해내야 했거든요. 정말 지치기도 했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낼 수 있었어요.



New Zealand
Tertiary College



중국과 뉴질랜드의 다른 육아 관점

제 생각에 중국은 아이가 양말을 신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처럼 신체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아이의 감정적인 웰빙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행복하며, 존중받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받는 '개인'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참 마음에 들어요.**

다문화 환경

제가 일하는 유치원은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중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중국어로 말해줄 때 정말 반가워하시고, 그런 순간에 서로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

지금 저는 예비 등록 교사로 일하고 있고, 졸업 후 오픈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예요. 제겐 언젠가 작은 홈 베이스 센터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따뜻하고 조화롭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언젠가 제 아이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학생들에게

마음도, 몸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제는 미리 계획하고, 실습 중엔 잘 쉬면서 체력을 잘 챙겨야 해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거예요!

“NZTC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온라인 학습 방식과 홈 센터 모델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